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LPG/ PC 등 5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아프리카 및 유럽 소재의 선사로부터 중형 LPG운반선 2척과 PC 3척 등 총 5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총 계약금액은 2.3억달러 규모이며 LPG운반선 계약에는 동일한 선박에 대한 옵션 1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됨. 건조계약 체결 된 선박들은 2022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한·캄보디아 FTA 타결...건설중장비 경쟁력 커진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3일 선언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세부 품목으로 보면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 딸기(7%), 김(15%) 등이 캄보디아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됨. (조선비즈)

Tianjin Southwest Maritime takes gas carrier orderbook past \$700m mark with VLGC deal

Tianjin Southwest Maritime (TSM)이 중국의 Jiangnan Shipyard에 93,000CBM급 VLGC 1+1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3년 8월이며 척 당 선가는 7,500만~7,600만달러 수준이라고 보도됨. 이번 계약까지 포함하면 TSM은 Jiangnan Shipyard에만 6.47억달러어치의 VLGC를 발주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중공업 노사, 2019 ·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현대중공업 노사가 3일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보도됨.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9년 임금의 경우 임금 기본급 4만6,000원 (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정액 인상), 성과금은 약정임금 218%, 격려금은 약정임금의 100% + 150만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타결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등이라고 보도됨. (조선비즈)

현대중공업도 ESG채권 발행 가세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둔 현대중공업이 ESG 채권을 발행해 투자 자금 조달에 나선다고 보도됨.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초 1,500억 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한다고 보도됨. 만기는 2 · 3년으로 시장 수요에 따라 최대 3,000억 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서울경제)

조선향 후판價 10만원 인상 추진 通할까

연초 개시된 협상에서 국내 철강사들은 톤당 10만원 이상의 가격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조선사들은 아직 여력이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보도됨. 포스코는 최근 가진 2020년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조선향 후판의 경우 올 상반기 톤당 10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양 업계가 가격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됨. (팍스넷뉴스)